



김재민 기자
축산경제신문

원종계 쿼터제 도입, 육계산업 위기 탈출의 바탕 쿼터제 만능 아니다... 파이 키우기 위한 노력 병행돼야 성공 가능 새로운 닭고기 시장 창출로 소비 늘리는 노력도 함께 해야...

반복된 AI와 계열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육계산업이 수년째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육계산업 불황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결국 수급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말았다.

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대한양계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종계 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종계 쿼터제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육계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원종계 쿼터제 도입

원종계 쿼터제는 국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병한 2003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를 강타했던 AI로 인체감염 및 사망사례까지 국내 언

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겨울 우리나라에 AI가 발병하면서 국내 양계산업은 양계산물 소비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됐다.

결국 정부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등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생산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데 결론을 내리고 대규모 종계감축과 함께 원종계 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AI발생 상황이 종식되고 소비 회복과 함께 종계감축 효과가 병아리 가격 상승과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원종계 자율쿼터제는 결국 깨지고 말았고 2006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라 병아리 가격과 닭고기 가격은 성수기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공급과잉이 예상됐던 2006년 종계품질저하로 입식됐던 병아리에 비해 생산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일시적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후 AI의 추가 발병, 소비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다른 축종들이 호황을 누릴 때 육계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쿼터제 도입 재시동

2006년부터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쿼터제의 재도입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시장원리에 따라 종계의 생산과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계속 주장해온 계열사 측의 주장에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다가 2007년 마니커가 원종계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같은 시기 사료가격이 폭등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주요 원종계 회사들은 생산비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계 과잉공급으로 3,000원에 팔던 병아리 가격이 2,000원으로 폭락, 경영압박에 시달렸고 2007년까지 계열사에 공급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쿼터제 도입을 반대해 왔던 원종계 회사들은 양계협회와 정부의 제안에 쿼터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으로 바뀌게 됐다.

지난 9월 2일 국내 원종계 4사는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12만수로 원종계 도입물량을 감축키로 합의하면서 4년여 간의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율쿼터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원종계 4사 실무책임자들이 원종계물량 감축을 기본으로 하는 쿼터제 시행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최근 마니커와 삼화육종이 지분

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 삼화의 물량을 4만5천수로 줄이기로 했다가 다시 6만수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기 때문이다.

마니커는 3만수의 원종계 도입물량을 1만5천수로 줄이는 대신 부족물량은 시장에서 구매하겠다고 하며 이번 원종계 쿼터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기업으로 이로 인해 다른 원종사들이 물량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해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삼화와 마니커의 지분협상이 쿼터제 도입을 위한 협약이후 타결되면서 삼화는 마니커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4만5천수까지 원종계 도입물량을 줄이기로 했던 것을 뒤집고 6만수로 늘리겠다고 입장을 선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원종과 하림도 삼화의 물량 늘리기를 견제하기 위해 자사 물량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자 이번 쿼터제 도입을 주도했던 양계협회는 마니커 등 각 계열사에 공식 입장 표명과 4개 회사 간 조율을 통해 12만수 당초 합의안을 유지할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서에 각 업체의 쿼터물량을 양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마니커가 1만5천수의 종계물량을 포기하고 삼화에 물량을 몰아주는 대신 안정적 종계확보 권리를 갖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하림은 삼화가 종계시장에서 시장 지배자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삼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원종은 물량차이가 많이 날 경우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현재 쿼터제 도입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쿼터제 향후 전망

원종사들과 주요 계열사들이 이번 쿼터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폭등한 곡물가격으로 종계, 육계 모두 생산비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생산비 내외에서 병아리와 닭고기 가격 덩핑을 통해 물량을 소진해 왔던 계열사와 원종사들은 그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산비를 보전할 수 없게 되자 물량을 줄여 생산비를 줄이는 것 밖에는 돌파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료가격 폭등의 원인인 국제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던 해상운임비도 바닥을 치면서 내년 1/4분기 내에 사료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어렵게 합의된 쿼터제가 자칫 운영도 되기 전에 무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쿼터제 논의, 육계산업 파이 키우기로 발전해야...

국내 적정 종계수는 5천만수 내외로 적정


원종계수는 10만수, 닭고기는 6억수를 적정 물량으로 보고 있다.

이 원종계 10만수는 2004년 초에 합의된 물량으로 그간 닭고기의 소비는 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지 않고 정체되면서 커버릴 대로 커버린 대형 계열사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서로 뺏고 빼앗는 출혈경쟁을 하고 있고 10% 밖에 남지 않은 사계시장 그리고 토종닭 시장까지 단숨에 장악해 버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혈 경쟁은 결국 수많은 계열사들의 부도와 경영악화로 이어졌고 육계 농가들의 삶의 질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10년간 모든 것은 올랐는데 닭고기 가격과 사육수수료만 오르지 않았다는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계열화 20년의 그림자는 과당 경쟁에 따른 닭고기 가치 하락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쿼터제 도입을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노력이 우선 돼야겠지만 육계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업계 공동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계열화 사업 이후 수년째 통닭을 주로 팔고 있는 계열사들은 새로운 가공품 개발과 부분 육 시장 창출, 친환경 닭고기 생산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농가, 계열사, 종계부화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쿼터제로 발전이 가능하리라 본다. 

〈표 1〉 최근 5년간 업체별 육용원종계 수입현황

(D-Line 기준, 단위: 수, %)

구분		삼화육종	한국원종	하림	마니커	소계	비고
2008	상반기	30,000	17,000	17,000	-	64,000	
	하반기	30,000	17,000	20,000	15,000	82,000	추정치
	소계	60,000	34,000	37,000	15,000	146,000	
2007	상반기	30,000	22,533	15,000	15,000	82,533	
	하반기	30,000	17,000	17,000	12,000	76,000	
	소계	60,000	39,533	32,000	27,000	158,533	
2006	상반기	30,000	15,000	17,000	-	62,000	
	하반기	30,000	17,000	17,000	15,000	79,000	
	소계	60,000	32,000	34,000	15,000	141,000	
2005	상반기	27,200	15,000	10,000	-	52,200	
	하반기	27,000	17,000	13,000	-	57,000	
	소계	54,200	32,000	23,000		109,200	
2004	상반기	27,500	25,000	10,000	-	62,500	
	하반기	25,000	12,000	10,000	-	47,000	
	소계	52,500	37,000	20,000		109,500	
소계평균		56,675	35,133	27,250	10,500	129,558	2004~2007
수입비율		43.75	27.12	21.03	8.10	100.00	2004~2007

〈표 2〉 업체별 수입배정물량

(D-Line 기준, 단위: 수, %)

구분	삼화육종	한국원종	하림	마니커	소계
배정량	45,000	30,000	30,000	15,000	120,000